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한일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에 저널리스트와 함께 눈을 돌려주길

조직 저널리즘 • 언론의 보도에 매일 접하면서 정권에 대한 ‘촌탁’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등 눈을 가리는 상황에 불신감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디어에서 활동해 온 베테랑(?)의 아저씨 • 아줌마들도 위기감을 공유해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저널리스트를 지향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 측에 서는” 자세를 키워 받기 위해 ‘저널리스트를 지향하는 한일학생포럼’ 활동이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한일’ 일까요? 한일간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공, 강제노동 등 지금도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가 상대에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행동은 저널리스트에 있어서 중요한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생각하는 일에도 이어집니다. 저널리스트가 매일 전하는 “현재”의 하나 하나는 “과거” 즉 역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일본과 한국에서 뉴스를 발신한다면, 지금의 언론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한일학생포럼 시도를 토대로 한일 여러분과 함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길을 찾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게스트 : 우에무라 다카시 (植村隆) 씨



1958년 고치현에서 태어남.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 82년 아사히신문사 입사. 오사카 사회부 기자 등을 거쳐 테헤란, 서울 특파원. 홋카이도 보도부 차장과 외보부 차장 등을 거쳐 베이징 특파원, 하코다테 지국장 등을 역임. 2014년 조기 퇴사. 17년 가을 ‘저널리스트를 지향하는 한일학생포럼’을 저널리스트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다. 16년부터 한국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18년부터 주간금요일 발행인 겸 사장, 19년부터 6월부터 ‘금요저널리즘학원’ 학원장. 모두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 니시지마 신지 (西嶋真司) 씨



1957년 태어남. 와세다대학 졸업. 81년 ‘RKB 마이니치방송’ 입사. 기사로서 보도부에 배치돼, 91~94년 JNN 서울특파원. 2000년 제작부에 이동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 2018년 퇴사. 영상제작사 ‘다큐멘트 아시아’를 설립. 다큐멘터리 영화 대표작에 “항거 기록작가 하야시 에이다이”. 현재는 전 아사히신문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의 공격 문제를 테마로 영화 “표적”을 제작중.

■ ‘저널리스트를 지향하는 한일학생포럼’에 참가한 뒤 현재 언론에서 일하는 기자와 학생도 출연합니다.

* 동시통역(일본어 • 한국어)이 있습니다.

■ 날짜: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13:30~16:00 ※접수시간 13:00~13:25

■ 회장: 온라인 개최

※온라인 회의 시스템 Zoom(언어 통역 기능 있음)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참가 방법은 신청한 분들에게 10월 26일까지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그룹 대화 세션과 게스트와의 대화도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듣기만 하는 참가도 가능하지만 대화의 마당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면 다행입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은 화면에 안 나오도록 설정하지만, 그룹대화에서는 자발적으로 얼굴을 내주셔도 됩니다.

■ 참가비: 무료 ※선착 50명. 마감은 【10월 25일】, 또는 【정원에 도달한 시점】 중 빠른 쪽이 됩니다.

■ 주최 : 인정 NPO 법인 마치포트 소셜 저스티스 기금 (SJF) <http://socialjustice.jp/> 이메일 info@socialjustice.jp

■ 신청폼: <https://socialjustice.jp/ko20201031.html> ※완전사전등록제 (여기 폼에서만 접수합니다)